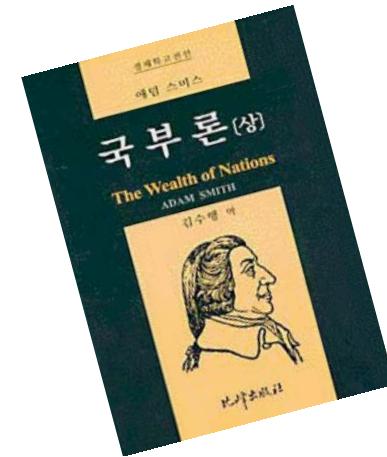


퍼펙트 論述

언어논술-국부론과정부 개입



이침 출근시간마다 타는 버스·지하철, 학교가 끝난 뒤 먹는 맛있는 떡볶이 한 접시, 직장인들이 퇴근할 때 마시는 한 잔의 시원한 맥주, 맛있어 보이는 디저털카메라.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인간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가장 공통적인 목적을 찾아보라면 '행복이 될 것 같다. 굳이 에피쿠루스 학파나 공리주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행복 = 어떤 일에 대해 만족감이 충족된 상태'라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행복해질 것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는 순간 행복해질 것이다.

결국, 만족감이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출발한다. 더러운가? 철학적으로 근대 사회의 문을 힘차게 열어버린 이후, 이 이기심에 대해 의문이 있던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김석
1318논술연구소
언어논술 강사

시장 자율화 한계 속 정부의 역할은?

1. 이기심의 두 얼굴 (토마스 휙스 vs 아담 스미스)

토마스 휙스(1588~1679)는 자신의 저서인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은 사악한 욕망이며, 이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인간은 '민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여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각 개인들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의 권리들을 양도하여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기적인 인간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에, 국가가 이들에게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마치 멀더스가 '인구론'에서 예언한 "인구는 억제되지 않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생산량은 고작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중대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는 예언만큼이나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우울함으로 일관되고 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타인들을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결정들이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유지되어 가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였다. 즉, 휙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묘사한 것과 같이 인간이 모두 이기적이라면 각 도시들은 모두 터락하고 부도덕한 상태로 변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살아생전 유머가 넘치고 인간미 있었던 글래스코 대학 교수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



〈토마스 휙스〉

〈아담 스미스〉

정론'(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 휙스의 견해에 반박할 하나님의 묘답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바 '공평정대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라는 개념인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양심(良心)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욕망을 추구하는 행동보다는 동정심이나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휙스의 생각처럼 무질서하거나 파괴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담스미스는 정대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적 이익까지 만들어 낸다고 역설한다. 그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뒤 정치인이고 국부 중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못 봤다고 고집한다. 반대로 장사꾼이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만은 국부의 중대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이 정치인과 관료를 비판하는 명분으로 그들의 생각과 스미스의 생각은 이런 점에서 동일선상에 있다.

덕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문제는 이기심이 비록 '공평정대한 관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휙스의 지적을 무시해도 괜찮을 만큼 스미스의 가설이 양전하게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언젠가 스미스가 전문학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는 별들이 각자 자신의 궤도만을 돌고 있는데 우주 전체가 조화와 균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이롭게 생각했다. 그는 이것이 인간사회에도 적용함을 믿었다.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 볼 때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각 개인들이 의도적으로 둘은 것은 아니겠지만...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익(共益)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고 자신이 공익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조차 모르는 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는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결실도 얻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국부론'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하지만 그 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메커니즘의 핵심을 가장 통찰력 있게 설명하는 키워드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손'이 되었다.

따라서 경제를 접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과 반드시 약수 한 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국부론과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은 어떤 책일까? 대단한 책?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부론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성서(Bible)이며, 경제학 분야를 대표하는 한 권의 고전을 선택하고 한다면 대부분 '국부론'을 선택할 것이다. 이와 같이 스미스의 '국부론'이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 저작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적인 모습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저작이라고 평가되며 때문이다.

'국부론'의 원제(原題)는 '여러 국민의 부(富)의 성질 및 원인에 관한 연구'이다. 원제목을 살펴보면 아담 스미스의 생각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각 개인이 만들어내는 부(副)의 성질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보다 잘 살고 싶어한다'는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신에게 모자란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바꾸고 싶다'는 욕구이다. 즉 이기심과 교역본능은, 특히 인간이 가진 이기심은 친절성, 박애심, 희생정신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경제학사상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구절에서 스미스는 이렇게 단언한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 양조장 주인, 뺨 제조업자들의 박애심

♣ 실전 문제 ♣

(가) (나)는 서로 추구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다른 지문이다. (다)가 각각의 정부 역할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가)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본국 노동의 유지에 사용하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수입이 가능한 한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그가 얼마나 촉진하는지도 모른다. 외국 노동보다 본국 노동의 유지를 선호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노동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나는 공공이익을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사실 심한 사이에 이러한 허풍은 일반적인 것도 아니며, 몇몇 미디언 해도 그런 허풍은 떨지 않는다.

- 아담 스미스, '국부론'

(나)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고 소득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보이지 않는 손' 즉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도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기도 한다. 또한, 도로나 공원뿐만 아니라 국방, 치안 등 시장에 맡겨 놓으면 생산되기 어려운 것들을 정부가 직접 생산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해 허용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 분배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황문성, '정부의 개입'

(다) 한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 모교를 방문하여 옛 경제학 스승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자는 스승의 탁자 위에 놓인 기발하고 시험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교수님께서 15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문제들이랑 똑같은데요! 학생들이 옛 시험 답안을 구해서 암기해 버리면 어떡하죠?" 교수는 깔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네, 괜찮아. 문제들은 같아도 돼. 답을 매년 바꾸어야 하거든."

-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이야기'

3. 대공황과 정부개입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은 실패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이기심, 즉 '보다 잘 살고 싶은 욕구'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상했지만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는 신의 숨결처럼,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스미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빚나가 버렸다. 마치 휙스가 '이기적인 인간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에, 내려려 두면 결국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어 인간은 결국 강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에게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보다 잘 살고 싶어한다'는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신에게 모자란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바꾸고 싶다'는 욕구이다.

즉 이기심과 교역본능은, 특히 인간이 가진 이기심은 친절성, 박애심, 희생정신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경제학사상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구절에서 스미스는 이렇게 단언한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뺨 제조업자들의 박애심

쉽게 알 수 있다. 1923년에서 1925년 사이 경제 평균지수를 100으로 잡고 비교해본다면, 1933년의 미국 공업 생산은 60, 건축은 14, 고용은 61, 노동자 임금은 3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경제가 반 동강이 난 셈이다. 결국, '정부는 국방과 치안만 감당하면 될 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유방임주의의 핵심적인 생각과 '보이지 않는 손'은 대공황이 만들어준 엄청난 충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경험은 바보에게도 가장 좋은 학교이고 필요한 발명을 넣는 법이다. 사람들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비록 자본주의가 많은 짐을 지녔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결점도 있기 때문에 기만두어도 잡초처럼 변성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교훈을 배웠다. 결국, 자본주의는 결가지를 쳐 주고 즐기기를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온실 속의 물질완전한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공황 이후의 대다수의 자본주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옆에 '정부의 보이는 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제학자인 존 케인즈(1883~1946)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기능의 확대는 ... 자부방임에 대한 무서운 침해가 아니다. 나는 그 것이 혼존하는 자유방임 경제의 전면적 붕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개인적 창조의 기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환경 조건이라는 점에서 지지한다."

1929년의 대공황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유방임주의의 물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공황 이후 1930년대 불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몇 가지 통계 수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1923년에서 1925년 사이 경제 평균지수를 100으로 잡고 비교해본다면, 1933년의 미국 공업 생산은 60, 건축은 14, 고용은 61, 노동자 임금은 3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경제가 반 동강이 난 셈이다. 결국, '정부는 국방과 치안만 감당하면 될 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유방임주의의 핵심적인 생각과 '보이지 않는 손'은 대공황이 만들어준 엄청난 충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경험은 바보에게도 가장 좋은 학교이고 필요한 발명을 넣는 법이다. 사람들은 대공황을 겪으면서 비록 자본주의가 많은 짐을 지녔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결점도 있기 때문에 기만두어도 잡초처럼 변성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교훈을 배웠다. 결국, 자본주의는 결가지를 쳐 주고 즐기기를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온실 속의 물질완전한 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공황 이후의 대다수의 자본주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옆에 '정부의 보이는 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정부기능의 확대는 ... 자부방임에 대한 무서운 침해가 아니다. 나는 그 것이 혼존하는 자유방임 경제의 전면적 붕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개인적 창조의 기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환경 조건이라는 점에서 지지한다."

공시 최고

아래 기자 종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7. 10. 29. 16:0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민원 이를 계기리하면 권리와 상실하여 종서의 부과금을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7년 7월 27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정훈

2007년 7월 27일 저급처·광주은행 양산동지점

최후소지인: 소지수

2007년 7월 27일 저급처·광주은행 양산동지점